

## 景福宮 勤政殿 목부재의 수종과 재질분석

김세종 · 박원규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 Species Identification of Wood Materials Used in the Keunjungjeon Hall of Kyungbok Palace in Seoul

Se-Jong Kim and Won-Kyu Park  
*School of Forest Resour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경복궁의 정전에 쓰여진 주요부재에 대하여 수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종분석을 통하여 그 당시 조선의 소나무 목재의 수급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소나무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목재가 사용되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러진 귀고주의 수종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근정전 수종 분석결과 소나무만이 아닌 전나무도 102점중 20점이 발견되었다. 기둥재 이외의 부재에선 전나무의 빈도가 56점중 2점으로 극히 낮았지만 기둥재에선 빈도가 46점중 18점으로 높았다. 덕수궁 중화전에서 기둥재로 전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재장(材長)이 긴 부재를 필요로 할 때 소나무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재장이 긴 전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재장이 긴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부재에서는 소나무가 대다수였다. 특히 근정전의 경우 다른 정전과 비교해서 건물높이가 현저히 높다. 내부에선 단층으로 보이나 외부에선 2층 형식으로 되어있다. 근정전 재건당시인 1867년 이전의 건물에 소나무의 사용이 많아 재장이 긴 소나무가 거의 소모되어, 부득이 필요로 재장이 맞는 전나무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특히 2층 부의 끝까지 올라가는 귀고주의 경우는 4개중 3개가 전나무로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할 수 있다. 부러진 귀고주가 전나무로 나왔는데 소나무와 전나무의 종압축·종인장 강도에서 소나무가 전나무보다 더 세다(이화영 등, 1999). 기둥재는 특히 종압축 강도와 전단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나무가 주 기둥재로 쓰인 것이 경험에 따른 선조들의 기술인가, 아니면 이때 어느 정도 실험에 따른 결과인가에 궁금증을 갖는다. 또 부러진 귀고주가 소나무였을 경우 지금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는다.